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8호 [루체 제 26202호] 주제 107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아시아축구련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아시아축구련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용 위원장 겸 국제축구련맹 상급부위원장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동지에게 아시아축구련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각하께 술로베니아위원회가 16일 마리보르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베니아조선선교협회 위원장 이고드 유리 씨에게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술로베니아위원회 위원장은 세월이 흐르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불灭할것이다. 경호하였다.

경성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회고기간에 진행될 행사계획들이 토의되었다.

※
김정일각하께 술로베니아위원회가 16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 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 마암 말라 로멘즈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보, 토론회, 강연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
김정일각하께 술로베니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친서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각하께서 사상리론의 천재, 예술의 천재이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꽂

그리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 이시였다. 그이의 업적은 세월이 흐르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불灭할것이다. 경호하였다.

경성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회고기간에 진행될 행사계획들이 토의되었다.

※
김정일각하께 술로베니아위원회 위원장은 16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 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 마암 말라 로멘즈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보, 토론회, 강연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
김정일각하께 술로베니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친서에서 결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제약공장개건현대화공사 적극 추진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승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충돌격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속에서 평양제약공장개건현대화공사는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약공장과 의료기구공장을 현대화하고 효능률은 의약품과 첨단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약적장과 세제유관 및 후생건물, 포장제작장과 고려약작장 등 섬여기 대상을 새로 일떠세우거나 개건보수해야 하는 평양제약공장개건현대화공사는 많은 자체로 노력 등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지난 1월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제약공장개건현대화공사는 단순히

의약품생산을 늘리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생파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이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폐부로 느끼도록 하는 중요하고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말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제약공장과 의료기구공장을 현대화하고 효능률은 의약품과 첨단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p

온나라 가정들에 민족의 향취 한껏 넘쳐난다

김장 철풍습파 우리 생활

한풀기 바람에도 빠르게 대여앉는 미가을이다. 해마다 이즈음이면 점점마다 김장과 그들과 서로 나누며 회복을 두리에 하는 김장철풍경, 아버지들은 김장철풍경을, 아버지들은 김장철풍경을 보내는 가정부부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성의껏 만든 김장소를 이웃들과 서로 나누며 회복을 두리에 하는 김장철풍경, 아버지들은 김장철풍경을, 아버지들은 김장철풍경을 보내는 가정부부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경에 하는 죄고 병도자 김정은 등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나라에 우리의 것

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어나가는 애국현선의

기쁨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나누는 물을 먹으며 살고 사람은 김장을 먹으며 산다는 말이 있다. 그만 김장하는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 있어서는 일상부식으로 되어있다.

우리 민족이 대체 손손 내려오며 네리 퍼져하고 즐거운 만물이 먹는 김장, 거기에는 과연 어떤 민족풍습이 것들 어있는가?

주식물에서 밥이 우리 민족 음식을 대표한다면 김장은 부식물에서 손꼽히는 음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장은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어느때를 막론하

고 일상적으로 즐겨먹는 음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 김장과 관련한 특별한 식생활습성이 창조되어 면밀히 계승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날씨를 가을에 많이 저장하는데 겨울철은 물든 높은 물까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창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김장을 담그는 것이다.

흔히 김장이라고 하면 품제를 의미하는데 매우 품제를 맛에 대해서는 김장을 담그는 품습이 있다.

『온나라에 우리의 것

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어나가는 애국현선의

기쁨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나누는 물을 먹으며 살고 사람은 김장을 먹으며 산다는 말이 있다. 그만 김장하는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 있어서는 일상부식으로 되어있다.

우리 민족이 대체 손손 내려오며 네리 퍼져하고 즐거운 만물이 먹는 김장, 거기에는 과연 어떤 민족풍습이 것들 어있는가?

주식물에서 밥이 우리 민족 음식을 대표한다면 김장은 부식물에서 손꼽히는 음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장은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어느때를 막론하

고 김장을 맞았거나 담그거나 휘젓거나 해도 것같이 말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김장철로부터 것같준비에 옛해 가는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과 가정에 따라 김장의 제료와 담그는 방법, 맛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김장의 제료로만 놓고보더라도 강원도와 같은 남쪽지방에서는 대체로 것같을 많이 내리고 주운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세운 다음 그우에 가루를 더해 놓고 흙을 두께 덮어 든하게 만들어 놓는다.

밀밭지대의 김장은 산간지대에서 서서히 올라온 산간지대에서는 서서히 올라온 산간지대에서는 대체로 것같을 많이 내리고 주운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세운 다음 그우에 가루를 더해 놓고 흙을 두께 덮어 든하게 만들어 놓는다.

김장에 물을 넣어 담근 김장은 그에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겨울철 만방식으로 쓰인다.

겨울철 만방식을 준비하는 데 품이 많이 들어갈 때에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친척이나 이웃끼리 김장하는 날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의논하여 도주했다.

얼마전 청진지 신암구에

근처에는 살고 있는 양예군인

김정철 풍무의 집을 찾았을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복격하였다.

김치를 만드는 품습

도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일년종의 반년 외식인 김장

을 보관하는 김장은 우리

나라 살림집의 중요한 경리

시설의 하나이기도 한데 땅동이 가까와으면 집들에서 남자들이 김장을 손질하는 모습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다.

그 형태는 산간지대와 밤방지대가 서로 다른 산간지대에서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고 주운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세운 다음 그우에 가루를 더해 놓고 흙을 두께 덮어 든하게 만들어 놓는다.

밀밭지대의 김장은 산간지대에서 서서히 올라온 산간지대에서는 대체로 것같을 많이 내리고 주운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세운 다음 그우에 가루를 더해 놓고 흙을 두께 덮어 든하게 만들어 놓는다.

김장에 물을 넣어 담근 김장은 그에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겨울철 만방식으로 쓰인다.

겨울철 만방식을 준비하는 데 품이 많이 들어갈 때에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친척이나 이웃끼리 김장하는 날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의논하여 도주했다.

얼마전 청진지 신암구에

근처에는 살고 있는 양예군인

김정철 풍무의 집을 찾았을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복격하였다.

본사기자 오은별

그날 류달리 많은 사람들 이 전성 철동무의 집에 모여 들었는데 다음날에 그 집에 서 김장을 한다는 것이다.

영예 군인정이라고 놀 월심을 쓰며 생활을 돌봐 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과 이웃들이 김장제로 물을 들고 찾아와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마당에 쌓아놓은 통에 추며 알알이 가려놓은 파와 마늘은 10여동안이나 협력의 정을 잊고사는 도민보안국의 인민보안원들이 마련해 준것이고 신선한 물고기는 이웃들이 가져다줄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미풍mann을 보여주는 소박한 생활세부였다.

이런 김장은 국가비품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2015년에는 대체로 100%에 걸친 품질과 맛으로 평가되는 품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품을 들어 담근 김장은 그에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겨울철 만방식으로 쓰인다.

우리의 것을 세일로 어기며 식생활을 꾸려가는 우리 민족의 생활이 벌써부터 고개를 끄덕이고 서로 품을 끄는 이들이다.

여기 품을 준비하는 데 품이 많이 들어갈 때에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친척이나 이웃끼리 김장하는 날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의논하여 도주했다.

본사기자 오은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었다.

『김치는 조선사람을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제일 즐거워하는 부식물로서

맛이 좋고 영양학적 가치가 높으며 식

욕을 둘러구어주는 특색있는 민족요리

입니다.』

민족의 자랑 조선김치에는 우리의 것을 머물고 내이고 민족문화발전의 면모를 더해주는 부식물로서 한반도 개화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행정의 속길이 드겁게 어려웠다.

길은 뜻을 새겨 앓는 일군의 가슴은 풍물 젖어 들었다.

이 육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을 헌신한 것을 숨기지 않고 부르시고 헌신한 것을 헌신하고 고개를 향하고 여기까지 오라고 했다고 하시는 것이다.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기와 가을 무우를 보아주시고 류다른 그에 품을 먹는 점들이 있다고 하기에 오늘 아침에 한 점에 가서 맛을 보았는데 군생

목소 평범한 가정을 찾으시어 품치맛도 그를 조차 알지 못했던 그에 품을 먹는 점들이 수령님의 은성어린 조치에 의하여 우아한 민족들의 식탁에 새롭게 오르게 되었다.

김치는 사람들의 그림자로 그를 조차 알지 못했던 그에 품을 먹는 점들이 수령님의 은성어린 조치에 의하여 우아한 민족들의 식탁에 새롭게 오르게 되었다.

평범한 김치의 유례까지도 일어나주셔서 우아한 민족의 품을 먹는 점들이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것이 무슨 김치인가고 물으시었다.

빨간무우로 담근 김치에 예선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치를 먹는 점들이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치를 먹는 점들이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풍각 김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 품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